

# KMI 동향분석

**VOL.128**  
2019 JULY

발간년월 2019년 7월(통권 제128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감 수 최재선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는 「KMI 섬 정책연구단」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섬 가치 제고, 접근성 개선과 고유자원 관리가 관건 - KMI 국민 섬 인식조사 결과 -

황재희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전문연구원  
(jhwang@kmi.re.kr / 051-797-4728)

김중덕 정책동향연구본부 본부장  
(jdkim65@kmi.re.kr / 051-797-4751)

김태일 해운정책연구실 실장  
(ktizorro@kmi.re.kr / 051-797-4613)

박상우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swpark@kmi.re.kr / 051-797-4562)

장정인 경제산업연구실 실장  
(jeongin@kmi.re.kr / 051-797-4717)

정지호 해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jhjung@kmi.re.kr / 051-797-4718)

최지연 해양수산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jychoi@kmi.re.kr / 051-797-4713)

하태영 항만정책연구실 실장  
(haty@kmi.re.kr / 051-797-4691)

홍장원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실장  
(jwhong@kmi.re.kr / 051-797-4721)

섬이 친숙한 해양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섬 생활·낚시 등 TV 프로그램 확대와 적극적인 섬 관광 정책은 여행트렌드, 소비행태 등의 변화와 함께 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증대를 이끌었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SNS의 ‘섬’ 언급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연관어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반면 섬은 여전히 찾아가기 어려운 곳이자 정주여건이 열악한 곳으로 남아 있다. 이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섬 정책연구단은 섬에 관한 국민인식과 정책수요를 분석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방향 수립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설문은 대한민국 성인남녀 1,023명(표본오차  $\pm 3.06\%$ )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모바일 조사(Open Survey)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81.1%는 우리나라 섬에 보통 이상의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관심 있음’ 33.1%, ‘보통’ 48.7%, ‘관심 없음’ 18.2%). 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로는 ‘여행·방문해 보고 싶어서(88.3%)’, ‘TV나 신문으로 많이 접해서(25.4%)’, ‘이주하여 살아보고 싶어서(17.7%)’,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10명 중 8명은 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섬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95.1%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상한 것과 달리, 섬 관심도가 낮은 집단의 45.9%는 ‘위험하다’, ‘멀다’, ‘비싸다’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렸다.

섬 방문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2.4%는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섬을 1~2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5회 이상 빈번하게 섬을 방문한다고 응답한 집단은 11.5%였다. 섬 방문의 만족도는 평균 3.57점(5점 척도)으로,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 53.1%를 차지했다. 섬 방문을 만족스럽게 하는 요인으로는 ‘아름다운 풍경(64.3%)’, ‘조용한 휴식(13.9%)’, ‘신선한 먹거리(8.8%)’ 등이 조사됐다.

한편, 섬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는 ‘부족한 배편(28.5%)’과 ‘비싼 승선료(20.4%)’, ‘항구까지 이동하는 교통 불편(20.4%)’이 꼽히는 등 선편 부족과 비싼 운임이 주된 불편요인으로 조사됐다. 섬 내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는 37.8%가 ‘숙박 등 비싼 체류 비용’이라고 답했으며, ‘편의시설 부족(24.3%)’, ‘섬 내 이동수단 부족(18.2%)’ 등도 불편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1년간 섬에 찾아가지 않은 응답자들도 취약한 교통접근성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부담을 섬 방문의 제약요인으로 지목했다.

섬 주민 또는 장기체류(한 달 이상) 경험자들은 섬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평균 3.56점(5점 척도)으로 응답했다. 섬 생활을 만족스럽게 하는 요인으로 ‘조용하고 깨끗한 자연환경(75.0%)’을 꼽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쾌적한 주거·생활기반(21.3%)’, ‘다양한 여가 활동(18.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교통인프라 미비(42.6%)’, ‘복지·의료서비스 부족(36.1%)’, ‘경제활동의 어려움(26.9%)’ 등은 섬 생활의 불만족 요인으로 선정됐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 섬의 잠재적 활용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의 주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관광자원(73.8%)’, ‘환경·생태 자원(48.3%)’, ‘수산자원(29.0%)’ 순으로 조사됐다.

섬의 가치보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로는 ‘자원·생태계 관리(42.9%)’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이어 ‘관광 활성화(22.1%)’, ‘접근성 개선(14.5%)’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규모 유인도 서에는 복지·의료(1순위) 및 교통인프라 개선(2순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됐다. 10가구 미만 섬 또는 무인도서의 경우에는 ‘생태·환경 보전(52.3%)’, ‘주변 섬들과 통합·거점 관리(39.1%)’가 주요한 관리방안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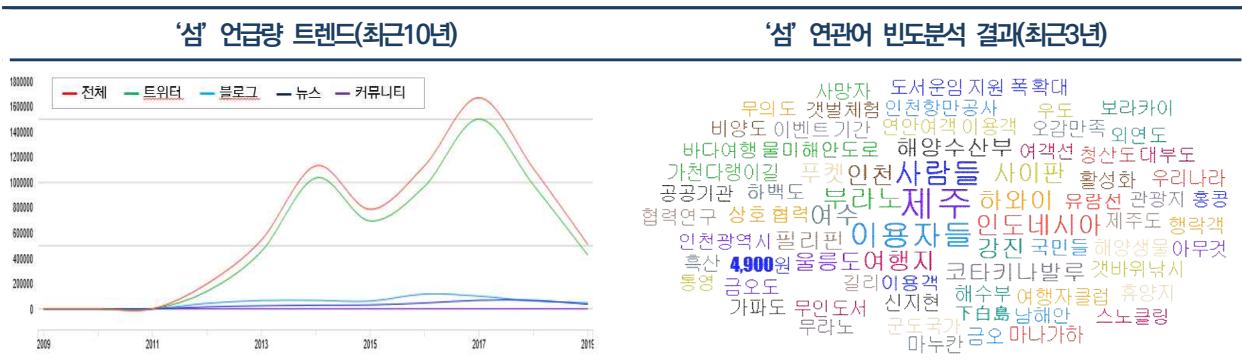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편 확대와 승선료 인하, 인식 제고 등 섬에 대한 물리적·정서적 접근성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둘째, 생태·환경자원이자 관광자원으로서 섬의 가치를 재발견·재정립해야 한다. 셋째, 유인도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서비스 개선 중심의 관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섬 가치 제고 사업을 위해서는 종합적 섬 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다부처 묶임·연계형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섬, 우리나라 국민 81.1%의 관심지역

### ■ KMI, 섬에 대한 국민인식과 정책수요 분석을 위해 대국민 섬 설문조사 실시

- 최근 들어 SNS에서 ‘섬’ 키워드 언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 대중매체, 여행트렌드, 소비행태 등의 변화와 함께 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방증함
- 지난 3년간 ‘섬’의 연관어로 검색되는 키워드는 주로 섬 이름, 섬 관광, 섬 어촌, 정책·연구 협력 분야에서 나타났고, 낚시객이 선호하는 갯바위낚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객선 운임 지원 등 다양한 관심사가 등장하였음
- 섬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증대와 다양한 사업수요를 반영하여, KMI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sup>1)</sup>
- 설문 목적은 섬에 대한 인식수준과 주요 정책수요를 조사하는 데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섬 정책 체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그림 1. SNS ‘섬’ 키워드 분석 결과



자료: KMI 실시간현안분석서비스(RTIFS)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작성일자: 2019.0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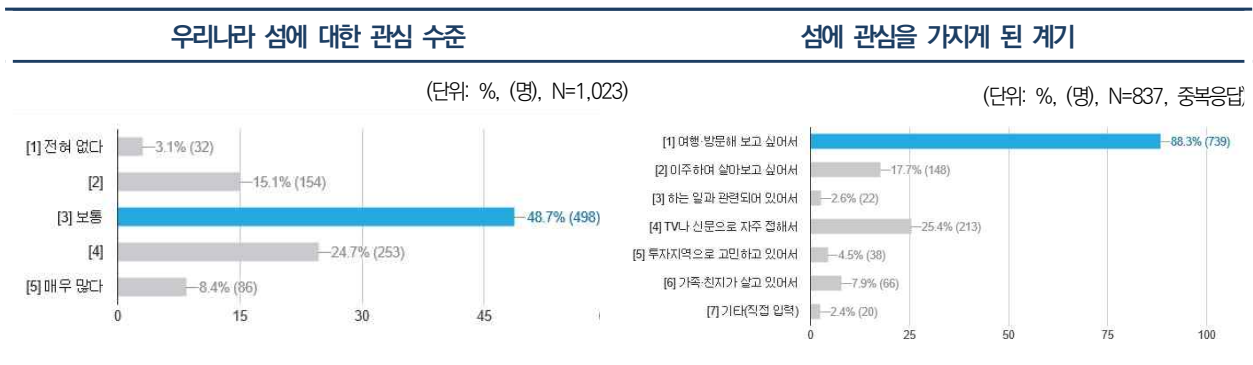
### ■ 국민의 81.1%가 우리나라 섬에 보통 이상의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이유는 여행·방문 의사, 대중매체의 호기심 유발, 거주 목적 순

- 우리나라 섬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관심 있음’이 33.1%, ‘보통’이 48.7%, ‘관심 없음’이 18.2%로 높지 않은 수준의 일반적인 관심도를 보이고 있음
- 연령 기준으로는 60대 이상, 성별은 남성, 직업군 중 직장인 응답자들이 섬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1) 조사명: ‘대국민 섬 설문조사: 여러분에게 섬은 어떤 공간인가요’ | 응답자수: 1,023명 | 표본오차:  $\pm 3.06\%$  (95% 신뢰수준) | 설문방법: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모바일 조사(Open Survey) | 표본추출방법: 성별, 연령, 지역, 직업을 타겟으로 한 층화표본추출

- 섬에 보통 이상의 관심을 가지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질문한 결과, ‘여행방문해 보고 싶어서(88.3%)’, ‘TV나 신문으로 많이 접해서(25.4%)’, ‘이주하여 살아 보고 싶어서(17.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투자지역으로 고려하고 있어서’ 응답도 4.5%로 집계됨

그림 2. 섬에 대한 관심도 조사 결과



자료: KMI 작성

## ■ 대다수 국민은 섬을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배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인식

-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섬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을 묻는 문항(중복응답)에서는 ‘배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64.3%)’, ‘독특한 생태·문화가 있는 곳(39.3%)’, ‘수산업 등 고기잡이가 활발한 곳(27.9%)’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또한 ‘고립되기 쉬운 곳(15.5%)’ 또는 ‘사람이 살지 않거나 살기 어려운 곳(10.9%)’ 등 섬을 무인 도나 도서·벽지와 동일시하는 사례도 관찰되었음

## ■ 국민 10명 중 8명은 섬을 긍정적인 공간으로 인식

- 전체 응답자의 81.1%가 섬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된다고 답변함
- 긍정적인 답변은 40대(84.9%), 50대(86.8%)에서 많이 응답된 반면, 부정적인 이미지(위험하다, 불편하다 등)를 연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26.3%)로 나타남
- 지난 5년간의 SNS 데이터를 바탕으로 섬에 대한 감성분석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보이는 자료가 부정적인 자료보다 2.4배 많은 것으로 분석됨
- 해당 분석결과에 따르면, 섬에 대한 긍정적인 키워드는 ‘아름답다’, ‘맑다’, ‘즐겁다’, ‘여유롭다’, ‘따뜻하다’ 등이 주로 검색되며 부정 감성 키워드로는 ‘힘들다’, ‘무섭다’, ‘죽다’, ‘위험하다’, ‘비싸다’와 같은 표현이 상당수 나타났음

그림 3. SNS '섬' 키워드 감성분석 결과



자료: KMI 실시간현안분석서비스(RTIFS)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작성일자: 2019.07.14.)

## ■ 울릉도와 독도, 국민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섬으로 선정

-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섬으로는 '울릉도(67.1%)'와 '독도(65.2%)'가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울릉도는 50대(70.2%)와 60대(70.9%) 중장년층에서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독도는 20대 응답자 중 80%가 선택하였음
- 또한 '백령도(12.1%)'와 같은 군사적 요충지도 국민적 인지도가 있는 섬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제주도(81건)<sup>2)</sup>, 강화도(2건)와 더불어 옹진군의 소이작도 및 굴업도, 통영시 소매물도, 여수시 돌산도(각 1건) 등의 소규모 섬지역도 일부 제시되었음

## ■ 하와이와 괌 등 주요 관광지,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해외의 대표 섬 지역

- 가장 많이 언급된 해외 섬 지역은 하와이(297회), 발리(59회), 보라카이(58회), 괌(47회) 등이며, 갈라파고스섬, 카나리아군도, 크레타섬 등 생태·문화적 특수성이 있는 섬지역도 답변으로 등장하였음
- 응답자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우리나라 섬이 울릉도, 독도와 같이 관광요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영토수호의 상징적 의미가 담긴 섬이라는 점과 달리, 인지도가 높은 해외 섬으로는 하와이, 발리, 괌 등 대표적인 휴양지가 선정되었음

2) 제주도는 면적·인구·행정 측면에서 국내 다른 섬들과 매우 차별적인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바, 선택항목으로 제시하지 않았음



## 섬의 자연환경 선호하나 교통 불편과 시간·비용 부담

### ■ 섬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72.4%가 지난 1년간 1~2회 국내 섬에 방문

- 섬 주민을 제외하고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섬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67.1%로<sup>3)</sup>, 나머지 32.9%는 섬에 가보지 못한 것으로 응답함
- 지난 1년간 섬 방문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72.4%가 연 1회 또는 2회의 빈도로 우리나라 섬을 찾아갔으며, 3회 방문한 응답자 비율은 12.2%, 4회는 3.9%, 5회 이상 빈번하게 섬을 방문한다고 응답한 집단은 11.5%로 나타남
- 섬 방문경험이 가장 적은 집단은 20대의 대학(원)생 여성으로, 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위험하다, 지저분하다, 멀다 등)를 가진 20대 여성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 반면 60대 이상의 직장인 집단은 지난 1년간 섬에 1회 방문하였다고 응답한 빈도가 높음
- 지난 1년간 섬을 찾은 응답자의 52.4%인 351명은 제주도에도 1회 방문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섬을 1회 방문한 응답자(289명)보다 큰 수치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응답자의 최소 17.7%는 국내 다른 섬에도 방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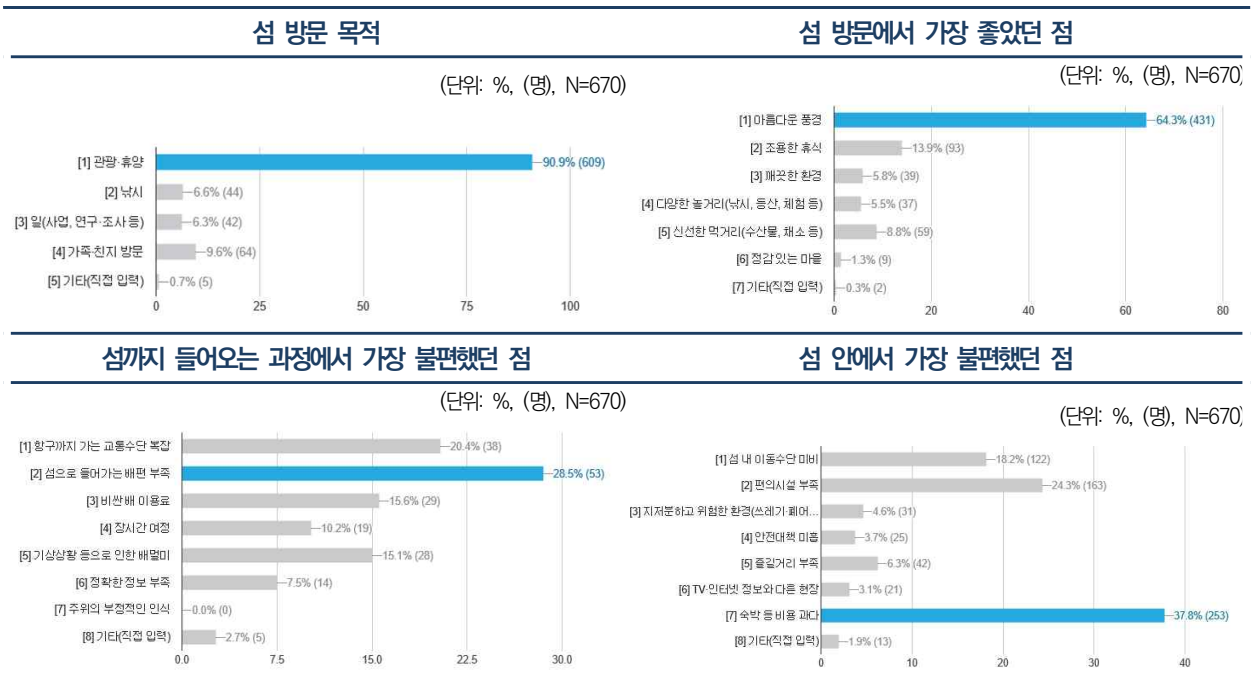
### ■ 섬 방문 경험자의 90.9%는 관광·휴양을 위해 섬을 찾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배편 부족과 높은 체류비용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

- 응답자의 90.9%가 지난 1년간 ‘관광·휴양’ 목적으로 섬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가족친지 방문(9.6%)’, ‘낚시(6.6%)’, ‘업무(6.3%)’ 목적 순으로 확인되었음
- 섬 방문에서 만족스러웠던 점으로는 ‘아름다운 풍경(64.3%)’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조용한 휴식(13.9%)’과 ‘신선한 먹거리(8.8%)’ 등이 다음을 차지함
- 특히 30대부터 60대 이상 여성 집단의 평균 73.2%가 ‘아름다운 풍경’을 가장 만족스러운 점으로 꼽은 반면, 30대와 40대 남성 응답자는 ‘다양한 놀거리(각 12.3%, 9.7%)’와 ‘신선한 먹거리(각 9.2%, 12.5%)’를 선택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입도(入島) 과정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부족한 배편(28.5%)’과 ‘항구까지 이동하는 교통 불편(20.4%)’, ‘비싼 승선료(20.4%)’ 순으로 조사되었고, 20대 응답자는 다른 연령대와 달리 ‘비싼 승선료(23.3%)’를 가장 불편한 요인으로 지목함

3) 주민등록인구통계(2019.4)를 기준으로 만20세 이상 인구는 42,515,092명, 2017년 도서관관광객은 13,194,340명으로 본 조사의 섬 방문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과다 집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응답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모바일 조사의 특성상, 섬에 관심이 있는 응답자가 설문에 더 많이 참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섬 내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을 질문한 결과, 37.8%의 응답자가 ‘숙박 등 비싼 체류비용’을 꼽았으며 ‘편의시설 부족(24.3%)’, ‘섬 내 이동수단 부족(18.2%)’ 등도 불편한 요인으로 선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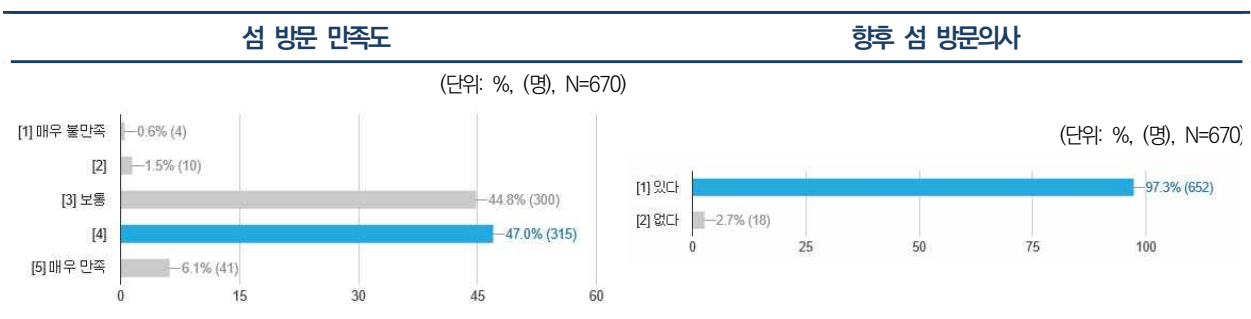
그림 4. 섬 방문객 대상 조사 결과



자료: KMI 작성

- 가장 최근 섬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만족도 평균은 3.57점(조사범위 1~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만족수준을 나타내며, ‘보통’이 44.8%,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이 53.1%로 섬 방문객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움
- 반면 섬 방문경험이 있는 집단의 97.3%가 섬에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1회 이상 섬 방문객의 섬에 대한 관심도와 방문의지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5. 섬 미방문객 대상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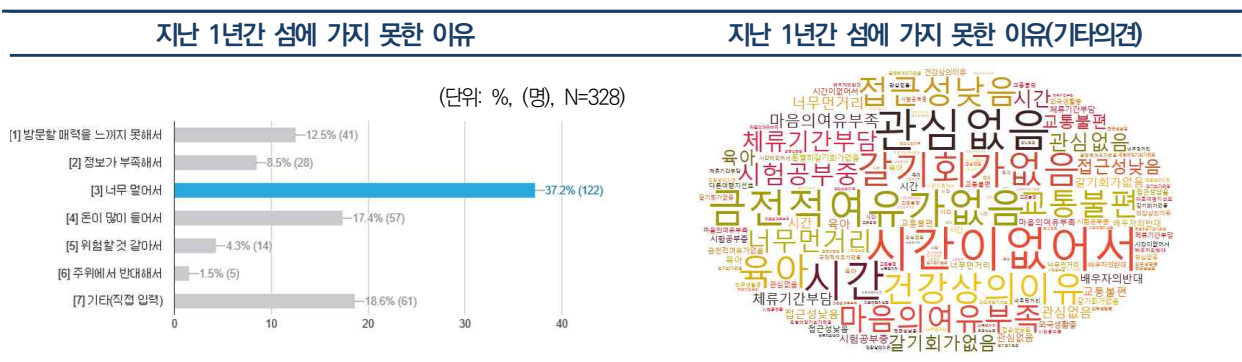


자료: KMI 작성

## ■ 섬에 방문하지 못한 이유는 먼 거리와 금전적·시간적 부담 때문

- 지난 1년간 섬에 찾아간 적이 없는 응답자들은 ‘너무 멀어서(37.2%)’, ‘비용이 많이 들어서(17.4%)’를 주요 이유로 선택하였음
- ‘기타(18.6%)’ 의견 또한 시간이 없거나, 체류기간 부담, 장거리 이동과 교통불편 등 접근성의 한계, 금전적 여유 부족 등 위와 유사한 내용을 섬 미 방문 사유로 들고 있음

그림 6. 섬에 방문하지 못한 이유 조사 결과



자료: KMI 작성

-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섬에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72.9%의 응답자들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있다’ 보기는 50대(80.3%)의 응답률이 높은 반면 ‘없다’는 20대(35.6%)에서 높게 나타남
- 향후 섬 방문의사가 있는 응답자들은 가고 싶은 섬으로 ‘육지와 가까운 섬(40.2%)’, ‘수산물이 풍부한 섬(33.9%)’, ‘주민들의 인심이 좋은 섬(30.5%)’, ‘자동차로 갈 수 있는 섬(26.4%)’를 선정함

## 섬 주민, 교통인프라와 복지·의료 등 기초생활서비스 문제 제기

### ■ 섬 거주 및 체류경험자들은 섬 생활의 만족도를 대체로 높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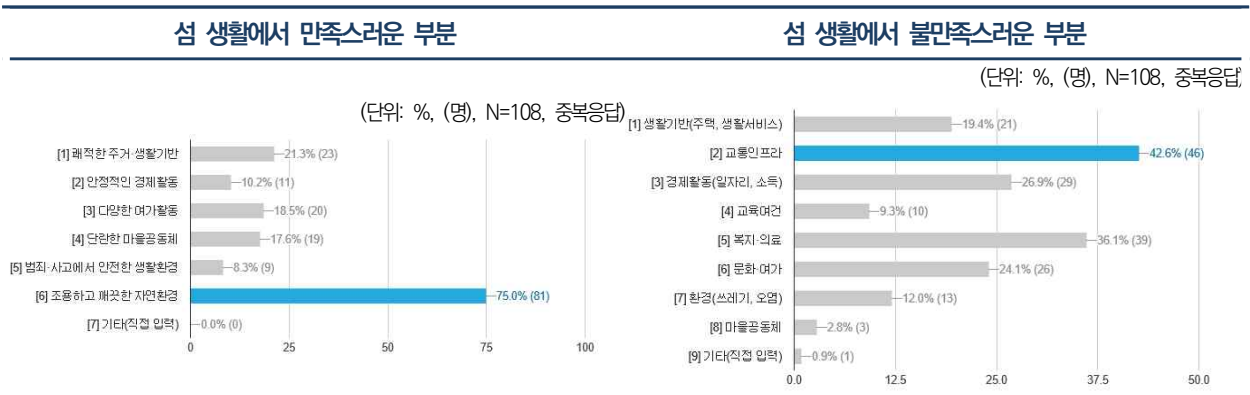
- 섬에 거주하고 있거나 한 달 이상 체류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섬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도 평균은 3.56점(조사범위 1~5점),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의 비중은 54.6%임
- 남성 그룹에서 ‘매우 만족’에 응답한 비율이 7.7%이고 ‘매우 불만족’은 3.1%인 반면, 여성은 ‘매우 만족’ 20.9%, ‘매우 불만족’ 0%로 나타나 남성 대비 높은 섬 생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음
- 특히 20대 여성 직장인 그룹의 만족도 평균은 4.60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역적으로는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 거주하면서 과거 섬에서 자랐거나 한 달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 ■ 쾌적한 자연환경은 섬 생활의 주요 만족요인, 교통인프라 부족은 불만족 요인으로 지목

- 도서주민 또는 체류경험자는 섬 생활을 만족스럽게 하는 요인으로 ‘조용하고 깨끗한 자연환경(75.0%)’을 꼽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쾌적한 주거생활기반(21.3%)’, ‘다양한 여가활동(18.5%)’ 등이 뒤를 이었음
- 섬 생활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교통인프라(42.6%)’, ‘복지·의료서비스(36.1%)’, ‘경제활동(26.9%)’, ‘문화·여가(24.1%)’ 등으로 조사되었음
- 불만족 요인으로 60대 이상은 ‘복지·의료’에 응답한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교통인프라(53.8%)’와 ‘문화·여가(53.8%)’ 부족을 꼽았음

그림 7. 섬 주민 또는 장기체류자 대상 조사 결과



자료: KMI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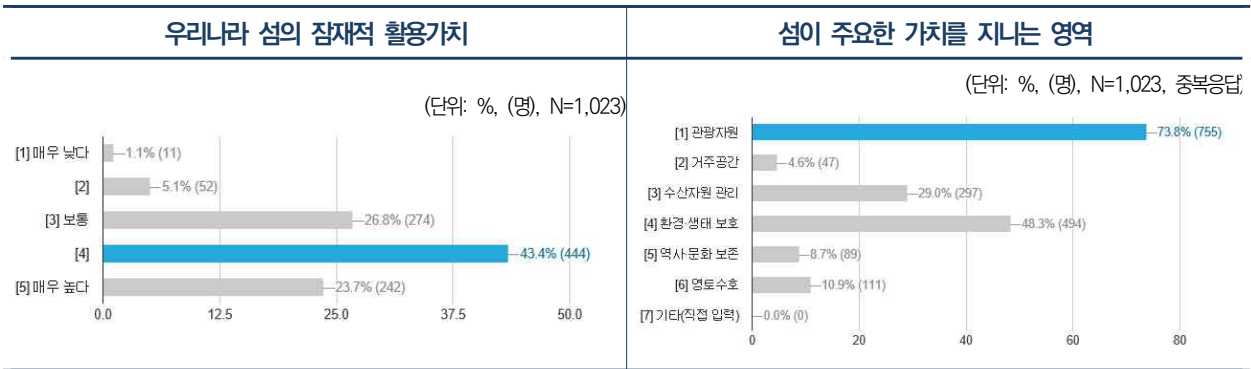
## 섬의 생태·환경적 가치, 국가차원의 섬 관리가 필요한 주요 요인

### ■ 응답자 67.1%는 우리나라 섬의 잠재적 활용가치를 높이 평가, 관광자원·생태환경·어장관리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

- 우리나라 섬의 잠재적 활용가치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균 3.83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음
- 섬의 활용가치가 높다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은 67.1%로 반대하는 의견 6.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며, ‘보통’에 응답한 집단은 전체의 1/4을 다소 상회하는 26.8%로 확인됨
- 더불어 섬이 ‘관광자원(73.8%)’으로서 주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환경·생태 보호(48.3%)’, ‘수산자원 관리(29.0%)’ 순으로 나타남
- 섬의 ‘환경·생태 보호’ 가치는 제주(73.7%)와 전남(67.5%) 지역에서 주로 응답했는데, 해당 지역은 섬 자원을 다양하게 보유하며 해양환경 정화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지역임

- ‘영토수호’ 기제로서 섬이 지니는 가치에는 전체 응답자의 10.9%가 동의했고, 지역적으로는 ‘충남 (16.3%)’, ‘경기(14.2%)’에서 높게 나타났음

그림 8. 섬의 가치에 대한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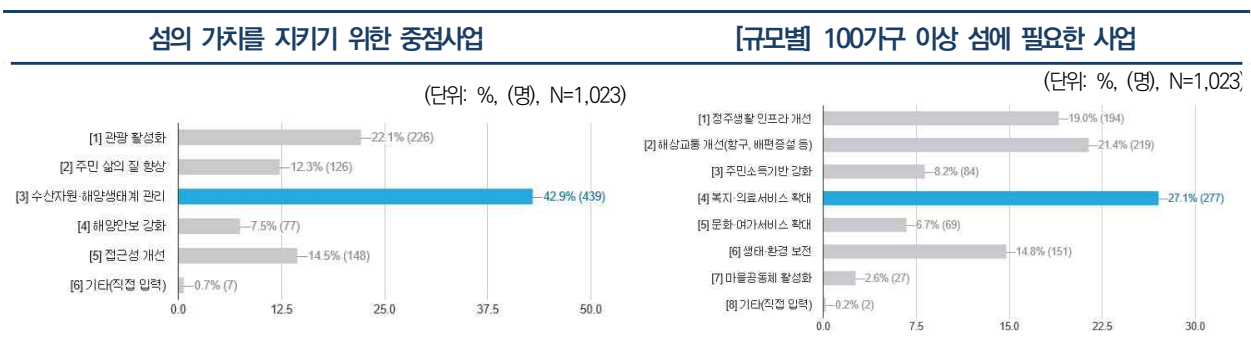


자료: KMI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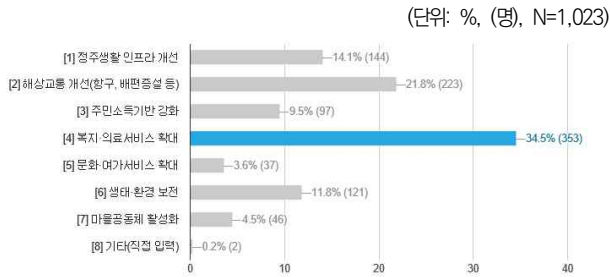
## ■ 섬의 가치보전을 위해서는 생태·환경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목, 유인도서의 경우 복지·의료 및 교통인프라 개선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필요

- 섬의 가치수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로는 ‘수산자원생태계 관리(42.9%)’가 2위의 1.9배에 이르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어 ‘관광 활성화(22.1%)’, ‘접근성 개선(14.5%)’ 순으로 나타남
- 대규모(100가구 이상) 또는 중소규모(1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섬에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는 ‘복지·의료(각 27.1%, 34.5%)’와 ‘해상교통(각 18.0%, 21.8%)’ 등 기초생활서비스가 선정됨
- 특히, 17개 시도별로는 주요 유인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남(39.3%), 경북(38.1%), 전남(37.5%), 인천(32.8%), 충남(32.6%) 지역에서 타 지역 대비 ‘복지·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 10가구 미만의 적은 사람이 살거나 무인도서의 경우에는 ‘생태환경 보전(52.3%)’ 중심의 섬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어 ‘주변 섬들과 통합거점 관리(39.1%)’를 주요한 관리 방안으로 선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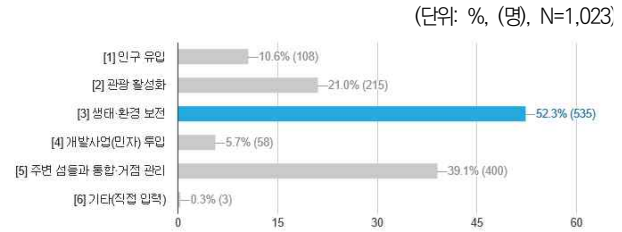
그림 9. 섬 가치보전을 위한 사업분야 조사 결과



[규모별] 100가구 미만 섬에 필요한 사업



[규모별] 10가구 미만 섬에 필요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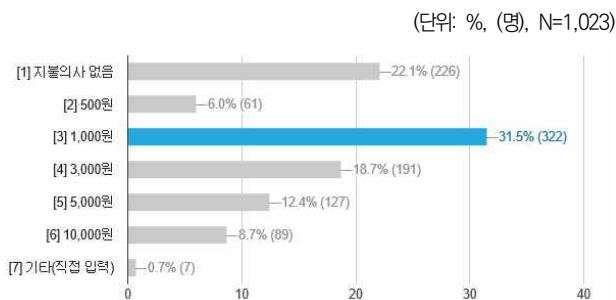
자료: KMI 작성

## ■ 섬 관리비용 지불의사는 응답자의 77.9%에서 확인되었고, 지불수단으로는 세금보다 사용자부담 또는 기부금 형태가 적절하다는 의견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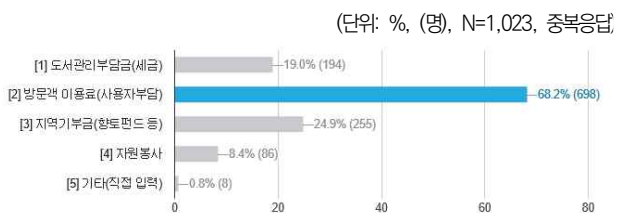
- 섬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면 지불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7.9%는 지불의사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22.1%는 지불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지불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그룹 중 44.4%(322명)는 1천원 수준의 지불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어 3천원(23.9%), 5천원(15.9%), 1만원(11.2%), 5백원(7.7%) 순으로 나타나는 등 지불의사가 있는 그룹은 1천원에서 3천원 수준의 관리비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지불수단으로는 '방문객이용료(68.2%)'와 같은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향토펜드 등 기부금(24.9%)', '세금(19.0%)'을 적정 지불수단으로 응답했음

그림 10. 섬 관리비용 지불의사 조사 결과

섬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비용지불의사



섬 관리비용 지불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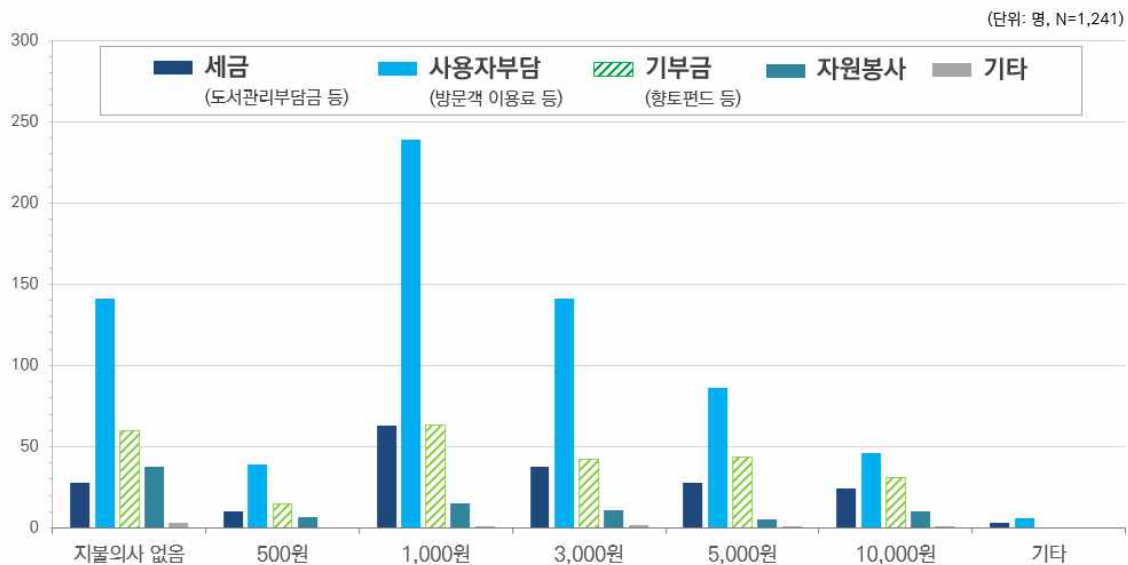


자료: KMI 작성

- 지불의사 유형별 지불수단 선택 경향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적정 지불비용으로 지목한 1천원 그룹에서 사용자부담(거주자부담)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3천원과 5천원 그룹은 여타 그룹에 비해 향토펜드 등의 지역기부금 형태로 관리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섬 관리비용 지불의사가 없는 그룹은 ‘자원봉사(16.8%)’로 관리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불의사가 있는 그룹에 비해 높았으며, ‘세금(12.4%)’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집단 대비 매우 낮았음
- 기타의견 중 ‘초기 단계에는 세금 활용, 체계 구축 이후에는 방문객이용료로 부담’이라는 운영단계에 따른 재원 차등에 대한 의견도 있음

그림 11. 지불의사에 따른 지불수단 선택 현황



자료: KMI 작성

## 국민수요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반한 종합적인 섬정책 추진 필요

### ■ 섬에 대한 물리적·정서적 접근성 개선으로 섬 방문과 거주에 대한 인식제고 요구

-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들이 섬에 대한 다소 높은 관심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불편과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적 부담으로 인해 섬 방문을 만족스럽게 느끼지 못하거나 방문하지 않고 있음
- 섬 주민들도 섬 생활의 가장 불편한 점으로 교통인프라 부족을 꼽는 등 해상교통과 같이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정비하여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
- 또한 섬을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배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과 같이 한정적인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3천여 개가 넘는 우리나라 섬 중에는 연륙교 개통으로 접근성이 높은 섬도 있으며, 생태 또는 역사적 특수성을 지니는 섬도 있는 등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섬에 대한 물리적·정서적 접근성 개선은 국민들이 섬을 가깝고 친숙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섬의 가치보전을 위해 주민과 관광객이 보다 적극적인 관리주체로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 국토의 중요한 생태·환경자원이자 관광자원으로서 섬의 가치를 재발견·재정립할 필요

- 설문 참여자들은 섬의 잠재적 활용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생태·환경자원과 관광자원 측면에서 섬의 가치가 높다고 응답하였음
-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관리는 생태·환경자원과 관광자원으로서 섬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점사업으로도 선정된 바, 종합적인 관점의 섬 생태·환경 관리가 국민이 원하는 주요한 섬 정책방향이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 정주공간으로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초생활서비스 개선 필요성 제기

-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유인도서의 중점사업으로 기초생활서비스(복지·의료, 교통) 제공을 꼽고 있으며, 섬 주민들도 섬 생활의 만족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 교통인프라와 복지·의료 서비스 부족이라고 응답함
- 그러나 섬 지역 생활서비스 관련 사업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유인도, 섬정주환경), 해양수산부(어업인 지원, 무인도서, 해상교통, 해양쓰레기 등), 국토교통부(연육연도교 등 인프라 건설, 낙후지역 지원 등), 보건복지부(복지·의료서비스), 교육부(학령인구, 폐교활용 등), 환경부(특정도서, 생태환경), 문화체육관광부(섬 관광 등)로 분리되어 있어 정책집행의 효율성·효과성 문제가 제기됨
- 또한 유인도서에 한하여 자치단체의 관리업무가 부과되고 있으나, 자치단체별 관리역량의 편차가 심해 체계적인 생활서비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섬의 가치 보전을 위해서는 현행 부처·기능별 칸막이식 관리체계를 넘어, 종합적 섬 관리를 위한 다부처 묶음연계형 정책 필요

- 설문 응답자의 77.9%가 종합적인 섬 정책을 위한 관리비용의 필요성과 지불의사를 긍정적으로 답변했음



- 반면 지금의 부처별·기능별 칸막이 섬 관리체계에서는 사업의 중복, 사업간 단절성에 따른 효과적인 사업집행 한계, 특정 사업수행시 다양한 부처의 규제 작용 등으로 인해 생태·관광자원이자 정주공간으로서 섬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의 도서개발·관리 사업을 연계하여 섬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활용·보존하고, 부처 간 섬 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섬 관리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듦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 ,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회의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물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물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물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2018.10.31.
제102호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업계,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보다 적극 대비해야	2018.11.07.

구분	제목	발간일
제103호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	2018.12.12.
제104호	우리나라 극지진출 40년, 미래 30년을 위한 극지 비전 수립 - '2018 북극협력주간' 성공적 개최와 세계최초 '2050년 극지비전' 선포	2018.12.19.
제105호	블록체인인의 확산과 해운물류분야의 대응	2019.01.02.
제106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9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2019.01.18.
제107호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시행 대비 해운부문 체계적 대응 필요	2019.01.30.
제108호	"국민횡감 광어", 소비 다변화 등 생존전략 마련해야	2019.02.13.
제109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일본의 자세 변화 필요	2019.03.08.
제110호	수산업관측사업 성과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2019.03.13.
제111호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2019.03.23.
제112호	2019년 중국 '양회', 해양수산물 관련 이슈 봇물, 항만비용 인하와 행정간소화 조치 에 주목 필요	2019.03.27.
제113호	'국민 80%, 해양이 국가발전에 기여' -KMI 2019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2019.04.17.
제114호	선박연료유 공급선박 벙커링 효율성 제고해야	2019.04.25.
제115호	4.27 판문점선언 1년, 해양수산물 남북협력 점검과 과제	2019.04.30.
제116호	주요국 해양정책 동향과 시사점 - 해양기반 성장전략 다시 만든다. -	2019.05.08.
제117호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국산 대체로 생산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듯	2019.05.09.
제118호	해양수산물 혁신사례 공유로 지역혁신성장 촉진	2019.05.15.
제119호	해양관련 국제기구, 글로벌 해양이슈 협력강화 논의 - 2019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 -	2019.05.24.
제120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북극이사회와 우리나라 북극협력 방향	2019.05.29.
제121호	미·중 무역전쟁이 해운·항만에 미치는 영향	2019.06.13.
제122호	서핑문화 정착을 통한 해양레저 활성화	2019.06.13.
제123호	어업작업 안전재해 감소 대책 시급 - 관련 제도 및 조직 정비 필요-	2019.06.18.
제124호	유조선 파격이 해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2019.06.28.
제125호	친환경 선박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 필요	2019.07.03.
제126호	북한 노동신문 키워드 분석으로 본 해양수산물 분야 시사점	2019.07.16.
제127호	대서양 연어 위해우려중 지정 유지에 따른 양식업계 대응 방향	2019.07.17.

URL: <https://www.kmi.re.kr/>